

구소련 고려인 문학에 대한 일고찰

시문학의 전개 과정과 양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spects of Poetry

김낙현**

국문초록 본고는 구소련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특성, 시문학의 전개 양상, 그 의의와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려인 문학은 1980년대 초 김연수에 의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고, 소련 해체 이후 이명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문학은 연해주에서 조명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선봉』 신문과 ‘고려극장’이 주요 매체였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에서 발행된 『레닌기치』 신문의 문예면을 통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전업 작가의 부재, 출판 여건의 열악함, 한글 작가의 감소 등 여러 제약 속에 전개되었고, 시문학은 시대에 따라 이상 실현, 조국에 대한 그리움, 소련 체제에 대한 동화, 개인적 서정, 역사 복원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고려인 문학은 민족 정서를 담은 작품으로서 민족문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초기 북한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핵심어 구소련, 고려인 문학, 『선봉』, 『레닌기치』, 사회주의 국가건설, 민족해방, 소련에의 동화, 서정시, 작가(작품)와 역사 복원, 민족문학, 북한문학

-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특성
 3. 고려인 시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
 4. 고려인 문학의 의의 및 남은 과제

1. 들어가는 말

구소련 고려인 문학은 1980년대 초 김연수에 의해서 국내에 작품이 알려지기¹ 시작했으며, 학계에서는 이명재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²을 발간한 이후 본격적인 문학 연구로서 활성화를 띠게 되었다. 지금까지 고려인 문학에

1 1983년에 재독정치학자 김연수는 고려인의 합동시집인 『캄차카의 가을』(정신문화원)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으며 다시 1986년과 1988년에 합동시집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 아이』(주류), 『치르치크의 아리랑』(인문당) 등을 편저하여 선보였으며, 1989년에는 소설집 『자밀라, 너는 나의 생명』(인문당)을 소개하였다.

2 이명재는 이 책에서 소련지역의 한글문학의 위상과 특성, 고려 문단인 프로필, 고려인 문학의 주요 자료집, 주요 고려인 작품 등을 소개하여 본격적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명재 편저,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 이 글은 필자의 「구소련권 고려인 시문학의 현황과 특성」(『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을 논의의 기초로 삼아 수정, 보완하였으며, 2014년 송실대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관한 연구가 꽤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에도 고려인 문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소 낯설고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구소련 고려인 문학은 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말하자면 알마아타는 고려인 문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현재 고려인 문학은 고려인 3, 4세대들이 모국어인 우리말을 거의 잊어가고 있어 고려인 문학 활동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고려인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외로 하고 구소련 고려인 작가인 한진과 이정희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해본다.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구소련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작가가 쓴 작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한글로 쓴 글뿐만 아니라 노어로 쓴 작품들도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다. 다른 하나는 오직 한글로만 쓴 고려인의 작품을 고려인 문학이라고 보자는 것이다. 한진은 첫 번째 견해를 피력하면서 노어로 쓴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려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고려인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이정희는 한글로 창작한 작품만이 고려인 문학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디아스포라(diaspora) 한인문학과 비교해보면, 고려인 문학은 소비에트 문학의 한 갈래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노어가 아닌 우리 민족 구성원에 의해서 한글로 창작된 작품만을 ‘고려인 문학’이라 칭하며 그것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문학작품이 한 민족의 정서를 표출한 결정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한 언어가 기본적으로 민족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한 민족 문학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필자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모국어로 창작되었던 구소련지역의 고려인 문학의 형성 및 특성, 시문

학을 중심으로 한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 끝으로 고려인 문학의 의의 및 남은 과제 등을 일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시문학을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구소련 고려인 문학은 시문학이 주된 장르였으며 그 작품의 양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9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구소련 고려인 문학의 작품 경향을 장르별로 제시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필자의 역량도 부족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시문학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통시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희곡도 추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고려인 시문학의 전개 과정 및 양상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고려인 문학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에서 간행된 시집 또는 일부 작품집과 국내에서 간행된 시집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간행된 고려인의 개인시집으로는 6권³이 있으나 이는 작가론적 측면에 국한되어 고려인 시문학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각각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모아서 발간된 종합작품집이나 공동작품집을 논의의 텍스트로 삼았다.

논의대상으로 선정한 텍스트는 총 5권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고려인 문단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시집 『조선시집』(1958)과 1970년대에 발간된 종합작품집 『시월의

3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이나 국내에서 간행된 개인시집으로는 김준의 『그대와 말하노라』(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77), 『숨』(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85), 리진의 『해돋이』(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89)와 『하늘은 언제나 나에게 너그러웠다』(창작과비평사, 1999), 박현의 『꿀호소의 들길에서』(의성출판사, 1997), 양원식의 『카자흐스탄의 산꽃』(시와진실, 2002) 등이 있다.

그리고 시가 수록된 작품집으로는 박일 편 『조선시집』(카사흐 국영 문예서적 출판사, 1958), 공동작품집인 『시월의 해빛』(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70)과 『씨레다리아의 곡조』(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75), 연성룡의 작품집 『행복의 노래』(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83), 『지옥의 종소리』(일흥, 1993), 김광현의 작품집 『싸』(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86), 공동작품집인 『꽃피는 땅』(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88), 종합작품집 『오늘의 벗』(알마아따사수시 출판사, 1990)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연수 편저의 『캅차카의 가을』(정신문화원, 1983),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 아이』(주류, 1986), 『치르치크의 아리랑』(인문당, 1988) 등이 있다.

이들 시집 또는 작품집에 수록되었던 시들은 『先鋒』이나 『레닌기치』 신문에 발표되었던 시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빛』(1970)과 『씨르다리아의 곡조』(1975), 1980년대에 간행된 공동시집 『꽃피는 땅』(1988) 등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고려인 문학 잡지인 『고려문화』(중앙아시아문인협회, 황금두뇌)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려문화』는 2006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출판되고 있는 유일한 고려인 문학 잡지이다.

고려인 문학은 구소련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의 일정한 과정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행, 발전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시적 관점에 의해 고려인 시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특성

주지하듯이, 수많은 조선인 혹은 한인들은 구한말 무렵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연해주(원동)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은 항일민족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신한촌’에서 태동하였다. 고려인 문학이 형성되고 성장,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는 포석 조명희였다. 그는 1928년 조선에서 연해주로 망명하여 산문시 「깃뺏힌 고려」(1928), 「시월의 노래」(1931), 「불세비키의 봄」(1931), 「까드르여, 너의 짐이 크다」(1935) 등의 작품을 한글 신문인 『先鋒』⁴에 발표하여 고려인 문학을 성장, 발전시킨 장본인이 바로 조명희였다. 후에 고려인 문학의 주축을 이루었던 강태수, 김준, 조기천, 김기철, 연성용 등이 포석이 길러낸 제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조명희는 고려인 문학의 개척자요, 선구자인 셈이다.

4 사회혁명의 선봉(아방가르드)에 선다는 의미를 지닌 이 신문은 1923년 3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韓인들이 창간한 한글 신문이다. 편집자는 한 반도에서 출판업에 종사했던 이백초, 이성, 오성무, 이괄, 김홍집 등이 맡았다. 창간 초기 주 1회로 시작하여 1930년대에 들어 격일로 간행되었다. 1925년 무렵 ‘문예페이지’가 개설되어 작품발표가 이루어졌으며, 1928년을 전후하여 연해주로 망명해온 조명희에 의해 ‘독자문예’ 등의 이름으로 문학 작품발표가 활성화되었다. 이 신문은 오랫동안 고려인 한글문학의 중심점 역할을 하다가 1937년 9월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폐간되었다.

고려인 문학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매개체로 작용한 『선봉』은 1923년 원동(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었다. 조명희를 비롯한 고려인들은 『선봉』에 문학작품을 발표하면서 비로소 고려인 문학이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봉』이 발행되었던 1923년부터 강제이주 이전인 1937년까지는 고려인 문학의 터를 닦았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고려극장’에 관한 것이다. 고려인 문학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매개체는 ‘고려극장’이었다. ‘고려극장’은 일제강점기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일지사들과 고려인들이 우리 문화와 민족 전통을 유지, 보존하겠다는 목적으로 1932년에 설립한 기관이다. 이 ‘고려극장’의 주축은 고려인 드라마 예술단이었고, 초대 극장장으로는 김태가 임명되었다. 강제이주 전인 1937년까지 연성용의 「장평동의 햇불」(1934), 태장춘의 「밭지경」(1934), 「종들」(1937), 리종림의 「춘향전」(1935), 채영의 「심청전」(1936) 등이 상연되었다.⁵ 구소련 고려인 문학에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던 ‘고려극장’은 1932년부터 2013년까지 200편이 넘는 연극이 공연되었다.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여 편의 연극을 즐기치게 공연했다는 사실은 세계 연극사에도 드문 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극사에서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다.⁶ 말하자면 ‘고려극장’은 구소련 고려인 문학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고려인들의 민족의식 유지와 강화에도 지대한 공로를 했던 매체였다.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이 행해졌던 1937년 이후, 고려인 문학의 중심지는 연해주 원동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아타로 옮겨졌다. 특히, 알마아타에서 발행되었던 고려인 한글 신문인 『레닌기치』⁷ 원동에서

5 조규익, 『CIS 지역 고려인 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137쪽 참조.

6 위의 책, 154쪽.

7 1937년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선봉』이 폐간된 이후 1938년 5월 15일 카

의 『선봉』과 같이 고려인 문학의 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였다. 이후, 이 신문은 1991년부터 『고려일보』로 개명되어 구소련권의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서 고려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형성, 발전했던 고려인 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그 특성을 떨 수밖에 없었다. 고려인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출판의 어려움과 전업 작가의 부재, 소수의 한정된 작가에 의한 창작, 한글 작가의 감소로 인한 쇠퇴 등의 특성을 보였다.⁸

고려인 문단은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개인 작품집을 출판하기는 어려웠으며,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장르를 함께 실은 공동작품집 형태로 출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⁹ 시집을 살펴본다면, 구소련 현지에서 간행된 개인시집은 김준의 『그대와 말하노라』(1977, 알마아따사수식출판)와 『숨』(1985, 알마아따사수식출판), 리진의 『해돌이』(1989, 알마아따사수식출판) 등 3권에 불과한 실정이다.¹⁰

자흐스탄 공화국 크즐오르다에서 『선봉』의 후신으로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지 성격을 띠다가 1940년에는 주 단위 신문으로, 1956년에는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고려인의 생활상과 사상을 표출하였다. 특히 고려인 작가들의 유일한 발표 매체였던 『레닌기치』는 1958년 문예란을 신설하면서 더욱 한글문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78년에는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타로 본사를 옮겼으며 판매 부수가 1만 5천을 넘어 구소련 전역, 북한 및 중국 지역까지 배포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들어서서 구소련의 붕괴로 폐간위기에 처했다가 1991년부터 다시 『고려일보』로 개명되어 간행되고 있다.

8 이에 관한 사항은 김낙현의 「구소련권 고려인 시문학의 현황과 특성」(『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57~360쪽)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9 이를테면 『시월의 햇빛』(1971), 『해바라기』(1982), 『행복의 고향』(1988), 『오늘의 벗』(1990) 등은 공동작품집으로 간행된 것이다. 이외에 연성용의 『행복의 노래』(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83)는 시와 희곡 등을 묶은 것이며 김광현의 『쌩』(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86)은 시와 단편소설 작품을 엮은 것이다. 이들 한글 작품집은 구소련권에서 한글 교육이 실행되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양의 작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10 지금까지 간행된 재소 고려인의 순수시집으로는 구소련에서 발간된 박일 편, 『조선시집』(카사흐 국영 문예서적 출판사, 1958), 김준 개인시집 『그대와 말하노라』(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77)와 『숨』(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85), 합동시집 『꽃피는 땅』(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88), 리진의 『해돌이』(알마아따사수식출판, 1989) 등 5권이 있으며, 국내에서 출판된 시집으로는 박현 시집 『골호조의 들길에서』(의성출판사, 1997)와 리진의 『하늘은 언제나 나에게 너그러웠다』(창작과비평사, 1999), 양원식의 『카

또 다른 고려인 문학의 특성으로는 어느 한 장르에 관한 전문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전업 작가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구소련의 출판에 관한 제한과 규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그나마 당국의 출판 허가가 나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출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므로 작품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에 고려인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직장을 갖게 되었고, 글을 썼던 문인들이 『레닌기치』의 후속인 『고려일보』 신문사에 종사하는 관계자 또는 출신자들이거나, 그들의 직장이 ‘고려극장’에 집중되었던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직장을 가지고 장편이나 대하소설 같은 작품을 써내기란 어려웠으며 출판도 거의 불가능했기에 고려인 문인들의 작품은 짧은 시와 단편소설, 희곡, 수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¹¹ 고려인 문학작품 중에 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고려인 문학은 한글을 아는 특정 세대의 소수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해주 계열 문인-고려인 문단 1세대: 원동의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나 성장하거나 한반도에서 출생한 뒤 신한촌에서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작품 활동을 했던 문인들이다. 조명희, 조기천, 강태수, 태장춘, 정상진, 김광현, 김준, 연성용, 김기철, 기석복, 전동혁 등. 이들은 고려인 문단 1세대 문인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작고하였다.

② 사할린 계열 문인-고려인 문단 2세대: 대개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사할린에 가서 노역했던 당시 동포 자녀들로서, 해방 이후에 구소련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이다. 이정희, 정장길, 최영근, 남경자 등. 이들 작가는 원동에서 이주해온 문단 1

자흐스탄의 산꽃』(시와 진실, 2002) 등 3권이 있다.

11 이정희, 「고려인 문단의 문제들」, 『제10회 국제문학 심포지엄: IT시대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주최(서울 7월 24일), 2003, 27쪽.

세대 못지않게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익힌 한글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의 한글문단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③ 탈북자 계열 문인-고려인 문단 2세대: 리진(이경진), 한진(한대용), 허진(허용배), 양원식, 맹동욱, 박현, 남철 등의 경우처럼 북한에서 태어나 소련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체류하여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 이들은 연해주 계열이나 사할린 계열 작가들에 비해서 모국어 활용 정도가 원활한 편이었다.

④ 정착한 서울 계열 문인-추가로 편입된 신세대: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구소련에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일고 한국과 교류를 시작하자 1990년대 이후 구소련으로 가서 사는 남한 출신으로서 고려인 문단에 합류한 문인들. 거의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정상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서 문단 활동을 하다가 고려인 문단에 새롭게 편입된 문인들로서 기존의 고려인 문인들과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시인 최석,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 강의를 겸하고 있는 김홍준 평론가, 문희권 번역가, 현재호 수필가, 그리고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서울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김병학 시인 등. 이들은 재래의 침체한 고려인 문단을 계승하여 일신할 신세대 문인들로서 고려인 문학 발전에 있어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⑤ 기타 현지어 계열 문인-고려인 문단 3세대: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나 소비에트 사회, 문화와 언어에 동화된 고려인 2, 3세대들 가운데 거의 한국어에는 서투른 대신 현지 노어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한 문인들. 소설가 김 로만, 리 드미뜨리, 아동소설가 강 게느리에타, 김 아나톨리, 박 미하일, 박 보리쓰, 리영광(리 웨체슬라브 보리스비치), 리 스타니슬라프 등은 이 부류에 속한다.¹²

이런 현상 때문에 한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노령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고려인 문단의 원로인 양원식과 정상진 선생이 각각 2006년과 2013년에 작고하여 고려인 한글문학은 이제 소멸 위기에 직면하였다.

3. 고려인 시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

시문학을 중심으로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고려인 문학에 대한 시대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고려인 문학의 시대구분은 크게 두 갈래로 이명재와 김필영에 의해서 대별된다. 여기에 강진구는 두 연구자의 견해를 참조하여 고려인 문학의 시대구분을 세분화하였다. 이들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재는 고려인 문학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① 재소 고려인 소비에트 건설기 문학(1925~1937), ②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및 암흑기(1937~1953), ③ 재소 고려인 문학 부흥기(1953~1991), ④ 재소 고려인 문학의 위기와 재정립기(1991~현재) 등으로 구분하였다.¹³ 이에 비해 김필영은 ① 형성기(1937~1953), ② 발전기(1954~1969), ③ 성숙기(1970~1984), ④ 쇠퇴기(1985~1991)로 구분¹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구는 이명재가 구소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려인 문학을 초기부터 다루고 있는데, 반해 김필영은 대상 자체를 중앙아시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진구는 강제이주 이전의 원동지역 고려인 문학은 고려인 문학의 원천으로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인 문학사에서 제외한 김필영의 시대구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¹⁵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강제이주 이전의 고

¹³ 위의 글, 528~531쪽 참조.

¹⁴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출판부, 2004.

¹⁵ 강진구,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 구소련 지역 고려인 문학사」,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8, 219쪽 참조.

¹² 이명재, 「고려인 문단의 현황과 자료의 체계화」(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532~535쪽)와 고송무의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실천, 1990, 184쪽 참조.

려인 문학을 포함하여 이명재와 강진구의 시대구분을 기본 축으로 삼아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강진구의 고려인 문학의 시대구분을 제시한다. 그것은 제1기(1923~1937): 태동기, 제2기(1938~1953): 암흑기, 제3기(1954~1969): 성장기, 제4기(1970~1990): 황금기, 제5기(1991~): 쇠퇴기¹⁶이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시대구분에 의해 전개된 고려인 시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양상이다.

3.1.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통한 이상 실현

1937년 강제이주 이전의 1세대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 경향은 대체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찬양과 소비에트 건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 표출, 프롤레타리아의 선도성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조명희의 시 「짓밟힌 고려」(1928), 「시월의 노래」(1931), 「여자 돌격대」(1931), 「맹서하고 나서자」(1934) 등과 한 아나톨리의 시 「사랑스러운 사랑」(1933), 「뜨락또리쓰트의 노래」(1933), 「공청동맹원」(1933), 전동혁의 「붉은 군인」(1934), 「보초병」(1934) 등의 작품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1928년 조명희가 구소련으로 망명하여 처음으로 발표한 「짓밟힌 고려」는 일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정신을 보여준다. 비록 조선의 현실이 “주립의 골짜기”, “죽음의 산”일지라도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를 통해 “거룩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새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을 역설한다. 이 점에서 「짓밟힌 고려」는 식민지 무산대중의 저력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이루려는 신념을 선언적으로 노래한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구소련에서의 조명희의 작품세계에 일관되게 표출되는 문학적 모티프이며 조명희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¹⁷고 하겠다.

조명희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결국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통한 이상 실현으로 귀결된다.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은 당시 구소련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문학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구소련 고려인들의 “혁명적 리해 관계는 로씨야 혁명과 분리할 수 없었다”¹⁸라는 진술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 구소련 시절 조명희는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이념을 기저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통한 이상 실현을 보여준 작품을 창작하였다. 조명희의 「여자돌격대」, 「맹서하고 나서자」 등의 시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¹⁹

3.2. 중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삶과 민족해방에 대한 열망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에서 1937년 ‘강제이주’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강제이주라는 단어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강제이주에 대한 언급은 소련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 것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받는 행위였기에 그렇다. 이에 따라 의식적으로 고려인들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강제이주에 따른 집단적인 외상을 이면에 감춘 채 중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개척과 삶을 노래하게 된다.

고려인 시집 중 ‘꿀호스’(집단농장)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개척과 노동 집단화의 승리 또는 거기서 파생된 노동의 기쁨 형상화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단연 『조선시집』²⁰(1958)이다. 이 시집은 고려인의 첫 시집이자 문학작품집인 만큼 강태수, 연성용, 계봉우, 태장춘, 주송

18 정상진, 「머리말 대신에」,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작가출판사, 1970, 351쪽.

19 이에 관한 사항은 김낙현의 「조명희 시 연구: 구소련에서 발표한 詩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6집, 우리문화회, 2012, 157~165쪽 참조.

20 『조선시집』은 1958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간행된 고려인의 첫 작품 집으로서 ‘고대 조선문인 시편’, ‘현대 조선문인 시편’, ‘소련 조선인작가 시편’으로 나뉘어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다루는 소련 조선인 작가 시편에는 계봉우, 한 아나톨리, 김준, 연성용, 태장춘, 림하, 김준손 등 고려인 문학의 1세대 혹은 원로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16 위의 글, 219쪽.

17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89, 105쪽.

원 등 초창기 고려인 문단을 주도했던 시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태장춘의 「김 만삼에게 대한 노래」, 조정봉의 「개척자는 달린다」 등의 시들은 강제이주 이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꿀호스’ 구성원으로서 성공한 자부심과 정착에 대한 성공을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런 시들은 대개 사회노동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아나톨리의 「뜨락또리쓰트의 노래」, 김준의 「열 길 솟은 강」, 연성용의 「씨를 활활 뿌려라」, 강태수의 「진정한 웃음」(『레닌기치』, 1958.4.26.), 김종세의 「우리 꿀호스」(『레닌기치』, 1952.5.8.) 등의 시들은 이러한 부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태장춘의 「김 만삼에게 대한 노래」는 실존 인물인 고려인 ‘김만삼’을 시적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서, ‘김만삼’은 1940년대 사회주의 노력 영웅이었다. 당시 고려인들은 “벼농사에 선수”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 내 각 민족 중에서 인구수에 비해 사회주의 노력 영웅이 가장 많았다.²¹ 이는 “희유한 현상”²²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현된 연유는 당시 소련 당국이 고려인들에게 취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소련은 고려인들을 적성 민족으로 취급하였는데, 이러한 소련의 의혹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소련에 대한 애국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 주목할 사실은 조선 문단과는 달리, 항일의식에 따른 민족해방 실현에 대한 열렬한 소망은 직접적으로 구소련 고려인 문단에서 작품으로 창작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연극으로 공연되어 매우 성행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은 홍범도 생존 시에 창작된 태장춘²³의

희곡 『홍범도』(1942)이다. 이 작품은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전설적인 영웅으로 알려진 홍범도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이후, 연극으로 공연되어 고려인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당시 고려인들에게 홍범도는 “움직일 수 없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들의 동질성 유지에도 커다란 힘”²⁴이 되었다. 말하자면 독립운동가인 홍범도는 고려인들에게 신격화된 항일혁명운동의 영웅으로 인식되었다. 태장춘의 『홍범도』가 발표되고 연극으로 공연된 이후, 고려문인 김세일에 의해서 장편 역사소설 『홍범도』(1968~1969)가 창작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구소련권 고려인 사회의 특수한 분위기 속에서 고려인들은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항일의식과 독립지사를 향한 동경과 흥미를 품게 되었다.

당시 고려인들에게 역사와 영웅을 주제로 한 작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고려문인 이정희에 의하면, 구소련 고려인들에게 항일혁명의 영웅 찾기는 나라를 잃은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애국 열사들의 모범”을 따르고 추종해야 할 “현세대의 도리”²⁵로 인식되었다. 1942년에 상연되었던 희곡 『홍범도』 역시 홍범도가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겪었던 실제 사실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다. 『홍범도』가 창작된 1942년은 소련과 독일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고, 홍범도가 대적하여 싸운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이 작품은 충분히 각광 받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작품 『홍범도』는 애국심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사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²⁶ 이렇듯 고려인 문학은 소련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민족의 공동체 의식의 발현인 민족해방에 대한

21 유 게라썸, 「재쓰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 12, 경남대학교 국동문예연구원, 1990, 274쪽.

22 위의 글, 275쪽. 이런 고려인들의 태도에 대해 유 게라썸은 “재쓰조선인들은 가장 평범한 애국자들이며 국제주의자들”이라면서 “정신으로 보아서는 소비에트 사람들이고 이름을 보아서는 로씨야인이고 출신을 보면 조선인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23 소련 연해주 출신인 태장춘은 1932년 조선극장이 창설될 때부터 희곡작가로서 구소련 고려인 극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1934년 고려극장에서 「발두령」을 상연했으며, 김진, 이함덕, 연성용, 최봉도, 박춘섭, 이

길수 등과 함께 고려극장의 시조로 불렸다. 고려극장, 『고려극장의 역사』, 라리쎬뜨, 2007, 122~123쪽.

24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실천, 1990, 37쪽.

25 이정희, 「재소한인 희곡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40쪽.

26 조규익, 「항일영웅과 역사의 연극미학적 재현」,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출판부, 2012, 29쪽 참조.

열망을 표출하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3.3. 소련에의 동화와 중앙아시아 현지인들과의 우애

1990년대까지 간행된 고려인들의 시작품에서는 고려인들은 소련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형상화하여 소련 공민으로서 삶에 충실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 ‘레닌’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찬송성향이 다수의 시집에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집은 1970년대 간행되었던 『시월의 해빛』(1970)과 『씨르다리아의 곡조』(1975) 등이다.

강제이주 이후, 소련에의 동화를 가장 잘 보여준 시로는 연성용의 「나는 자랑한다」라는 작품이다. 연성용은 이 시에서 “나는 그 때/ 음울한 그 시절……(중략)/ 지금 와서/ 나는/ 팔호스원!/ 친목한 가정의/ 동등한 자식이요,/ 꽃 피는 이 땅에/ 뿌리 박은 주인이요,/ 자유로운 이 나라의/ 당당한 공민이니/ 이는/ 가장 높은 영예!/ 까닭에/ 나는/ 사랑 깊은 내 나라-/ 쏘베트 조국에 사는 것을/ 당당히 자랑한다.”²⁷라고 노래한다.

위의 시는 ‘소련인 되기’의 한 과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연성용 자신의 조국은 소련으로 제시되어 있다. 연성용의 전기적 사실²⁸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고향은 연해주이며, 그는 단 한 번도 한반도에서 살아 본 적도 없으며 한반도를 체험한 적도 없었다. 그는 고려인이었지만 고향또는 조국은 소련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종의 생존적 전략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려인들은 강제이주 이후, 구소련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소련인으로서 동화되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조국이란 고려인들에게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고려인들

이 자신의 조국에 관해 관심을 지닌다는 것은 소련으로부터 흔히 근거 애매한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곤²⁹ 하였다. 이외에도 주송원의 「내 조국, 한 아나톨리의 「전쟁이 나면」, 전동혁의 장편서사시 「박영감」(1967)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70~80년대 고려인 시문학의 또 다른 특성은 중앙아시아 현지인들과의 우애를 강조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연성용의 「카사흐스탄아, 나의 절을 받으라」(1970)와 「오, 알마아따!」(1976), 김두철의 「파스켄트」(1979), 강태수의 「카사흐스탄」(1980), 남철의 「알마아따의 밤」(1980)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련에의 동화를 구현한 것으로서,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현지인들과의 밀접한 교류와 친화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적성 민족으로 취급했던 소련을 향한 친연성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4. 개인 서정시

고려인 문학은 1980년 후반에 들어서, 1987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으로 구소련의 개방과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보다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을 담고 있는 개인 서정시가 다수를 차지한다. 시집 『꽃피는 땅』(알마타 시수식출판사, 1988)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시집이다.

김광현의 「고운 오월의 서곡」은 ‘서정시초’라는 부제하에 5월의 자연 배경을 통한 내면의 개인 정서를 표출한 시이다. “나무도 풀도/ 오월의 해빛/ 따뜻이 받는다./ 그 은혜로/ 하늘에/ 인사를 보내는 듯/ 푸른 이과리 나풀나 풀……/ 새들이 날아간다./ 재주를 피운다-/ 고운 오월의 서곡이/ 울린다 간간히.”³⁰라고 노래하면서 개인적인 내

27 『레닌기치』, 1959년 11월 7일에 발표됨.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작가출판사, 1970, 113쪽에 수록됨.

28 연성용은 1909년 러시아 원동 연해주 신한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연해주 조선극장 시절부터 고려인 연극계를 이끌어 왔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연성용 작품집』(1981), 『행복의 노래』(1983) 등이 있고 회상록으로 『신들메를 즐라 매며』(1993)가 있다.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1970), 109쪽 참조.

29 리진, 「러시아 속의 한국문학과 문학인」, 『한국문학』 24(4), 한민족문화인회, 1996, 120쪽.

30 공동시집 『꽃피는 땅』, 알마아따시수식출판사, 1988, 37쪽.

면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 시기의 시작품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시적 소재가 거의 예외 없이 자연을 형상화한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 외에 김광현의 「비소리에」, 「우박도」, 「가시풀」, 「북극성」, 「별들은」, 「젓나무」 등의 작품 역시 이런 부류의 작품이다.

아울러 이 시기 시문학에 나타난 또 한 가지의 주된 특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 시인인 리진은 그의 시 「자위」에서 “무심히 흘러가면서/ 쉬임없이 변하는 구름의/ 모양과 모양이/ 웬 일인지 바로/ 덧없는 세월의 상징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닌듯한/ 그런 때가 있다. //(중략)// 무서운지/ 고마운지 모를것이/ 시간이라며/ 오늘은/ 자위할줄/ 나는/ 이미/ 안다 // (중략) // 허나/ 허나 분명 우리는/ 무엇인지/ 잃어간다/ 우물에/ 드레박이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을/ 오늘/ 한둘인가”³¹라고 노래하며, 세월의 무상함, 변화하는 것에 대한 내성화된 개인적 정서를 형상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고려인 시문학은 구소련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현실을 담은 작품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담은 서정시로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구현한 작품과는 거리가 멀다.

이후, 구소련은 1989년 11월 14일 “강제이주에 처해졌던 민족들을 억압해온 제법규들을 위법적이고 범죄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³²라는 획기적인 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강제이주’라는 금기어가 문학작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 1937년 강제이주의 참상을 담은 한진의 소설 「공포」(『레닌기치』, 1989.5.29)인 것이다.

3.5. 작가(작품)와 역사의 복원

『고려문화』는 구소련이 개혁, 개방한 후에 한국에서 중

앙아시아 현지에 들어가 살면서 문학 활동을 하는 몇 명의 문인들과 기존의 고려인 문인들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유일한 한글 문화예술지이다. 이 문예지는 2006년 11월에 중앙아시아문인협회 이름으로 카자흐스탄 알마아타에서 창간되었다. 『고려문화』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 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계간으로 간행되고 있다. 이 문예지에는 기성의 고려문인 일부와 서울에서 알마아타에 합류한 신진들은 물론 서울의 일부 문인들의 찬조 원고를 싣고 있다. 『고려문화』는 서울에서 출판되고 있으며 2006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통권 4호가 발간되었다.

『고려문화』 창간호에는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요 개척자라 일컬어지는 포석 조명희의 삶과 문학을 특집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향수를 읊은 김홍준의 「노스텔지어」, 알마아타의 풍경과 서정을 노래한 최석의 「개양귀비 꽃의 소묘-알마티 이야기 7」, 고려인 시인 양원식의 애석한 죽음을 추모한 김병학의 「시인의 길」 등의 시가 소개되어 있다. 소설 작품으로는 강제이주의 수난과 아픔을 그린 이정희의 「그날」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고려인 문학이 걸어온 길을 더듬고 회상하는 정상진, 양원식 선생의 회고록이 게재되어 있다. 『고려문화』 모두가 그렇지만, 창간호의 특징은 고려인 문학 형성이나 전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작가나 작품세계를 복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1937년에 있었던 강제이주의 처참한 상황에 따른 비극적인 고려인들의 역사적인 삶을 복원하고 있다.

제2호(2007)에는 역시 특집으로 1세대 고려인 시인이었던 강태수의 삶과 문학을 다루고 있으며,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고려문인 리길수, 연성용, 정상진, 강태수 등의 회고록을 담고 있다. 시작품으로는 최석의 「고려인을 위하여」, 김병학의 「경계에 서서」 등이 있고, 소설로는 이정희의 「소나무」, 남경자의 「갈림길」 등이 수록되었다. 최석의 시 「고려인을 위하여」는 시인 자신이 직접 강제이주는 당하지 않았지만, 고려인들의 강제이주에 대한 회상을

31 위의 책, 95~97쪽.

32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독립국가연합』, 통일원, 1996, 151쪽.

통하여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과 그 후손들의 삶을 노래하여 아픈 역사를 복원하고 있다. 이정희의 소설 「소나무」는 이미 1989년에 발표했던 작품을 재수록한 것이다. 「소나무」에서는 한반도 충청도 태생이었던 복순이가 사할린에 징병으로 끌려갔던 시아버지를 찾아온 가족이 사할린으로 떠나 시아버지를 찾았지만, 조국 한반도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의 아픔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 역시 구소련 고려인들의 지난한 삶과 흔적을 추적하여 아픈 역사를 복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가(작품)와 역사의 복원은 제3호에서도 지속된 현상으로서 최석의 시 「봉분의 역사」에서는 고려인 노동영웅 김만삼과 고려극장의 배우 리함덕의 삶을 회상하고 추모하고 있으며, 「강남달」에서는 강태수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또한, 윤종관의 시 「우쉬또베의 한」은 강제이주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고려인 아리랑」에서는 조국을 떠나 낯선 이국에서 살았던 고려인들의 한스러웠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3호 역시 조기천, 김세일, 정장길, 연성용 등의 고려인 작품들을 재수록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특집으로 고려극장 80주년과 풍자로 보는 고려인 사회를 다루고 있다. 제4호에서도 많은 고려문인 작품을 재수록하여 다루고 있으며, 일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의 서정적인 시를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려문화』의 주된 특성은 작가(작품)와 역사의 복원을 시도하여 구소련 고려인 문학을 재조명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문인들이 고려인 문인에 대한 추모와 강제이주 등의 아픈 역사를 통해 이를 작품으로 시화하여 작가와 역사를 복원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풍광이나 삶 등을 노래한 서정성이 두드러진 작품들과 서울의 일부 문인들의 작품과 평론이 실려 있다.

4. 고려인 문학의 의의 및 남은 과제

구소련의 고려인 문학이 한민족에 의해 모국어로 창작되었고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문학을 민족 문학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소련 고려인 문학은 거의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고려인 문학의 명맥을 유지해왔던 『고려일보』도 한글 인구 감소함에 따라 한글판과 러시아어판을 함께 발간하고 있다. 한글판 발행주기도 줄었으며 문예면도 아예 폐지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창작된 작품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하여 민족 문학의 외연 확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한글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고려인 작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민족 문학의 한 범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문학은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묶인 작품의 해금과 중국 조선족의 문학과 구소련권의 고려인 문학, 재일, 재미, 호주 등 재외동포들의 문학소개와 연구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국문학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들 문학이 한국문학과 교류할 때 한국문학의 본질적 층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구소련 고려인 문학을 연구하는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은 고려인 문학과 해방 직후 북한문학과의 연계 선상에서 두 문학이 갖는 고리를 찾고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가에 대한 탐색과 조명이다. 이는 단순히 구소련 고려인 문학을 단절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장 선상에서 북한문학 형성과정에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던 구소련권 고려인 문학을 고찰해보아야 한다. 해방 직후 북한문학의 시작이자 북한문학사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조기천을 비롯한 정상진(정율), 전동혁, 명철, 기석복 등 고려인 문인들은 구소련에 의해 북한에 파견되어 북한문학 형성기에 당시 선진문학으로 인식되

었던 소련문학을 전수하면서 북한문학 형성기에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한 천착이 추후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선봉』, 『레닌기치』, 『고려문화』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작가출판사, 1970.
 공동작품집 『씨르다리아의 곡조』, 알마아따, 1975.
 공동시집 『꽃피는 땅』, 알마아따사수시출판사, 1988.
 김연수 편, 합동시집 『캄차카의 가을』, 정신문화원, 1983.
 김연수 편, 합동시집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아이』, 주류, 1986.
 김연수 편, 합동시집 『치르치크의 아리랑』, 인문당, 1988.
 김준,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따사수시출판사, 1977.
 박일 편, 『조선시집』, 카사흐 국영 문예서적 출판사, 1958.

2. 단행본 및 논문

- 강진구, 「고려인 문학의 전개 과정과 그 특징: 구소련지역 고려인 문학사」,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2008.
 고려극장, 『고려극장의 역사』, 라리쎌뜨, 2007.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이론과실천, 1990.
 권희영, 『세계의 한민족-독립국가연합』, 통일원, 1996.
 김낙현, 「구소련권 고려인 시문학의 현황과 특성」, 『어문연구』 32(2),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04.
 김낙현, 「조명희 시 연구: 구소련에서 발표한 詩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6, 우리문학회, 2012.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89.
 김종희 편,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김웁뜨르, 「소련의 조선인들」, 『레닌기치』, 1988년 8월 5일.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출판부, 2004.
 리진, 「러시아 속의 한국문학과 문학인」, 『한국문학』 24(4), 한민족문학인회, 1996.
 우블라지미르, 『씨르다리아의 곡조』 머리말 「시월이 낳은 문학」, 알마아따, 1975.
 유게라쎌, 「재쓰사람들」, 『한국과 국제정치』 1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이명재, 『소련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이명재, 「고려인 문단의 현황과 자료의 체계화」,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2, 국학자료원, 2006.
 이정희, 「재소 한인 희곡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이정희, 「고려인 문단의 문제들」, 『제10회 국제문학 심포지엄: IT시대 한국문학의 세계화 방안』,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주최, 2003.
 정상진, 「머리말 대신에」, 『시월의 해빛』, 알마아따작가출판사, 1970.
 조규익, 「항일영웅과 역사의 연극미학적 재현」,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출판부, 2012.
 조규익, 『CIS 지역 고려인 사회 소인예술단과 전문예술단의 한글문학』, 태학사, 2013.

Abstract**A Study on Korean Literatu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spects of Poetry

Kim, Nak-Hyeon |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Korean literature in the former Soviet Union, with a focus on its poetic development, themes, and significance. Initiated by Jo Myeong-hee and mediated through platforms such as Seonbong and Lenin Gichi, Korean literature reflected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Korean diaspora. Key poetic themes ranged from socialist idealism and national liberation to assimilation and personal lyricism. Despite difficult conditions—such as limited publishing opportunities and a decline in Korean-language writers—the literature persisted and evolved. As an expression of Korean identity abroad, it belongs within the scope of national literature and warrants further study alongside early North Korean literature.

Keywords Korean literature, former Soviet Union, Seonbong, Lenin Gichi, socialist idealism, national liberation, assimilation, lyricism, national literature, North Korean literature
